

환경부, 면세점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 조사 결과 공개

- 2019년 대비 2023년 비닐재질 쇼핑백 65%, 비닐재질 완충재 87% 절감
(1인당 사용량 기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자발적협약을 맺은 12개 면세점에서 발생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조사한 결과, 2023년 발생량이 2019년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2023년) 9월 15일 한국면세점협회 및 12개 면세점*과 비닐재질 쇼핑백과 완충재(일명 뽁뽁이) 등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품·유통 포장재 감량을 위한 자발적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한 12개 면세점은 전체 면세점 대비 매출액 기준 96.2%, 매장 수 기준 82%에 해당한다.

*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 제주관광공사, 경북공면세점, 그랜드면세점, 디엠면세점, 부산면세점, 시티면세점, 울산면세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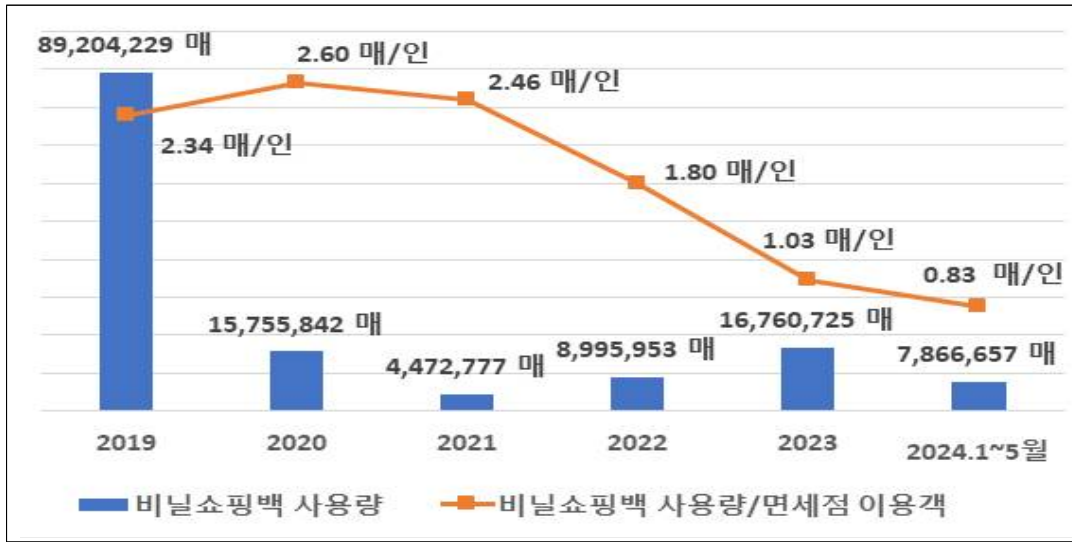
그간 면세점 업계는 면세점 운영 과정에서 친환경 경영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협약 이전에는 기본적으로 비닐쇼핑백을 사용하거나, 면세품 운송 과정에서 파손을 예방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비닐재질 완충재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면세점협회와 면세점 업계는 자발적협약을 적극 이행하며 친환경 경영으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조사 결과, 2023년 비닐쇼핑백 사용량은 1,676만여 개로 2019년 8,920만개 비해 약 81%가 줄어들었다.

해외여행이 어려웠던 코로나19 기간(2020~2022년) 중에 비닐쇼핑백 사용량이 크게 감소했던 점을 감안해도 눈에 띄게 줄어든 수치다. 무엇보다 면세점 이용객 1인당 사용량이 2019년 2.34매에서 2020년 2.6매로 다소 증가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올해(2024년) 1~5월 기간 중에는 1인당 사용량이 0.83매까지 줄어들었다.

이는 면세점 업계가 비닐쇼핑백을 종이쇼핑백으로 바꾸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비닐쇼핑백을 사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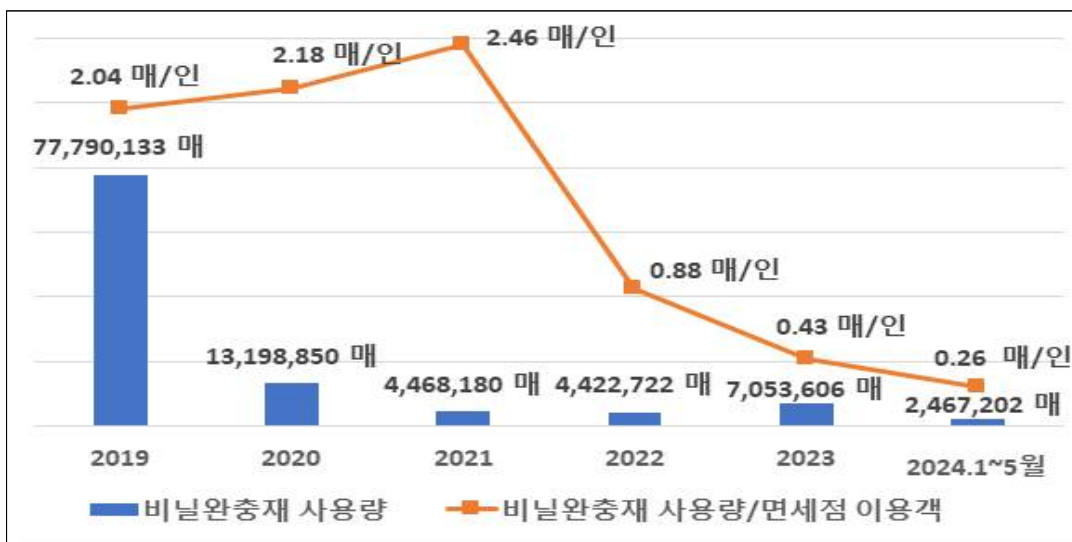
* 무거운 면세품을 운반하거나 밀봉용 봉투 등 종이쇼핑백으로 전환이 어려운 경우에 제한적 사용



<비닐쇼핑백 사용량 및 1인당 사용량>

비닐완충재 사용량도 대폭 줄어들었다. 2019년 기준 7,779만개가 사용된 비닐완충재는 2023년 705만개로 감소했다. 1인당 사용량 역시 2019년 2.04매에서 올해(2024년) 1~5월에는 0.26매로 87% 줄었다.

이는 면세점 업계가 관행적으로 쓰던 비닐완충재를 줄이기 위해 파손 위험이 낮은 제품에는 비닐완충재를 쓰지 않는 등 최대한 사용을 줄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울러 다회용 완충가방 또는 종이완충재를 사용하거나, 면세품 운송 중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완충재 대신 견고한 다회용 상자를 적극 활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비닐완충재 사용량 및 1인당 사용량>

또한 면세점 업계는 낙하방지용 물류 포장재도 회수해 재활용하고 있으며, △업무용 차량의 전기차 전환, △사무실 내 일회용품 사용 최소화, △전자영수증 발급 등 친환경 경영을 펼치고 있다.

환경부는 자발적협약 맺은 이번 면세점 업계의 일회용품 사용량 조사 결과 공개를 시작으로 야구장,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 다양한 업종과 체결한 협약 이후의 일회용품 사용량을 분석하여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회용품 줄이기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다양한 업종과 협업하여 폐기물 원천 감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자율감량의 효과는 즉각적이진 않지만, 분명히 나타나고 있으며 그 범위도 훨씬 폭 넓다”라면서, “자발적협약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최대 87%까지 줄인 면세점 업계에 감사드리며, 이러한 성과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자발적협약 이행 사례.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일회용품감량추진단	책임자	부단장	임수영 (044-201-7417)
		담당자	사무관	김무연 (044-201-7414)
			주무관	노광일 (044-201-7415)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 일회용 비닐쇼핑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사용량을 감축한다



⇒



<기존>
비닐쇼핑백 사용

<개선>
종이쇼핑백 사용

- 유통 및 판매과정에서 사용되는 비닐재질의 완충재는 손상이 쉬운 특정품목에 한해서 사용 함으로써 2027년도까지 사용량을 50%이상 감축한다



<기존>
비닐소재 완충재(뽁뽁이) 사용

⇒

<개선>
종이완충재 사용



<기존>
비닐재질 포장재 사용

<개선>
다회용 완충가방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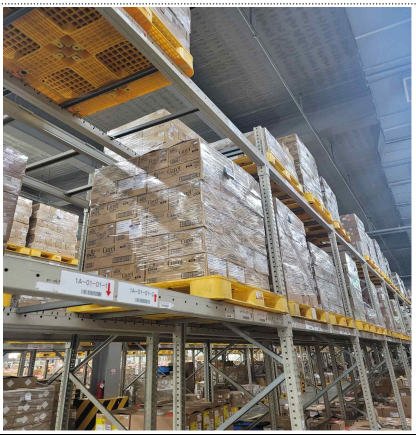
⇒



<기존>
견고하지 않은 행낭가방 사용
(물품 보호를 위해 완충재 다량 사용)

<개선>
견고한 다회용 상자 사용
(완충재 사용 절감)

- 물류과정에서 사용되는 낙하방지용 물류랩을 재활용하는 등 포장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노력한다



재활용되는 낙하방지 물류랩

재활용 낙하방지 물류랩

다회용 낙하방지 가방 사용

- 소비자의 일회용품 및 포장재 사용 줄이기 실천을 촉진하기 위해 홍보·캠페인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일회용품 줄이기 포스터



비닐쇼핑백 줄이기 캠페인



친환경 캠페인 프로젝트